

◆ 선교지소식 (레바논 이대영/서현정 선교사)

예멘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며 잠시 머물기로 했었는데, 벌써 이곳에서 5년째가 되었네요. 새로운 사역에 적응하며 쉽지 않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였고, 귀한 열매들을 보게 해 주셔서 이 또한 저희에게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 소식을 전합니다. 모두를 움츠리게 했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예년보다 빠르게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라고 해도 클리닉에서는 진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겨울 내내 높은 지대에 내리는 눈 때문에 이동진료는 계획을 했다가 취소하기도 하면서 애 태웠을 때가 있었 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도 이제는 지나가고 언제 봄이 왔다 갔는지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벌써부터 여름 날씨 를 보이는 이곳 날씨가 여전히 적응이 안되네요. 작년 말부터 시작된 레바논 현지 사회의 불안정은 최근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지만, 5월 6일 레바논 총선을 앞두고 모두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전쟁도 8년 째가 되었지만, 완전한 평화 조약은 여전히 소원하기만 합니다. 지난 달 아프란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악화 되었고,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베이루트에서 진행된 사역자 컨퍼런스에서 많은 분 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레바논 및 시리아 현지 교회에서 많은 영적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실제로 전해 들으면서 많이 격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사역이 그 가운데 조금이나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코이카 사업 연장이 승인 되면서 앞으로 3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사역을 진행하면 서 잘 쉬지 못해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사역을 건강하게 현지에 이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요구되어 상황들 을 좀 더 지켜보며 결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대신해 이곳 사역을 이어서 진행해 줄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는데, 중동에서의 의료/보건 사역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이 사역을 잘 이해하면서 현지 파트너 단체 사람들과 매끄러운 관계를 이끌어 가야하는 부담을 안고 사역을 계속 진행할 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영은 그동안 해오던 난민 의료 사역과 더불어 작년부턴 현지 의대생/의료인 모임 (CMF-Christian Medical Fellowship Lebanon)을 시작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일환으로 지난 2월에 런던에서 진행된 학생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레바논 의대생 리더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주중에는 학생 리더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래밍이었고, 주말에는 영국의 기독교 의대생들이 함께 한 컨퍼런스였는데, 대영도 몇 강의를 맡아 참여하게 되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힘든없는 일정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이 버거웠지만, 젊은 의대생들 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사역적 인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기에 영적,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중동/ 레바논 지역의 의대생 모임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 25일에서 27일까지 중동 지역의 CMF 리더 및 학생들과 함께 소규모의 컨퍼런스를 레바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음에 저항이 강한 지역이 기도 하고,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회 및 기독교 단 체들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지만, 기독교 의료인들 모임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젊은 의대생과 의료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정은 클리닉과 모든 의료 사역을 통틀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에 새로운 현지 간호사 '산드라'가 함께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클리닉 분위기는 오히려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산드라가 잘 적응하고 훈련되어 이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르'도 현지 사역 행정 요원으로 1월 부터 함께 하게 되었는데, 향후 모든 사역이 현지 리더십으로 이양될 때 행정 원장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지 리더십이 키워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 되게 되어 많이 감사하고 있는데, 현정의 역할을 통해 모든 현지 동역자들이 하나의 팀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교회소식 (Announcement)

- 새 가 족** - 최창순/황선미(지혜/지환)온두라스 현미/3남,4여성도회
- 김용하/김옥철 온두라스 신학교/1남,2여성도회
- 강진성/송정화 연길/5남,5여성도회
- Tully A./김호경 레바논/2남,2여성도회
- 윤정순 캄보디아/1여성도회
- 문세연, 경혜진(동우,동건)/베트남
- 정 기 제 직 회** 오늘 2부 친교 후에 있습니다.
- 성 찬 식** 다음 주(5/6)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 기 당 회** 다음 주(5/6)에 있습니다.
- 가 족 운 동 회** 다음 주(5/6)에는 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장소: THPRD 시간: 2시30분
- 매 일 성 경** 매일성경 5,6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한/영\$7)
- 친 교** **2018년 친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
문의: 친교부 신청: 계시관
4월 친교 배식/정리는 3남성도회 입니다.
5월 친교 배식/정리는 4남성도회 입니다.
- 교 우 동 정**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강성구/권재현/김미영/송병수/이봉희/이영실/이지현)

Youth Nich So 전도사 휴가(4.23-5.3)

오레곤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of Oregon P.C.A.

2018년 4월29일 (제23권 17호)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원 로 목 사	이경천 (Rev. Joseph K. Lee)	
담 임 목 사	원정훈 (Rev. Peace J. Won)	
교 육 목 사	곽성환 (Rev. Sung H. Kwak) (청년)	
	김용규 (Rev. Elliot Kim) (장년)	
	다니엘 리 (Rev. Daniel Lee) (EM/다문화)	
전 도 사	고현준 (Pastor James Ko)	
	니콜라스 서 (Pastor Nicholas So)	
	라빈 (Teacher Robin Williams)	
파 송 선교 사	스테파니아 (Missionary Stefania Tarasut)	
시 무 장 로	박홍문 (Kenneth Park) 이곤일 (Chris Lee)	
	이효성 (Hans Lee) 정석재 (Samuel Jeong)	
지 휘 자	이효성 (Hans Lee) 이정아 (Jung-Ah Lee)	
반 주 자	윤영서 (Young-Seo Yoon) 윤재선 (Jae Sun Yoon)	
오 르 간	박인화 (In-Hwa Park)	

협력선교단체 및 선교사

난닝 (MK-LRC센터) 동북아 (김00) 러시아 (GP/박동국) 루마니아 (에덴/스테파니아)
말리 (COME/정민경) 북한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베트남 (다리놓는 사람들/박중암)
한국이슬람 (WEC/황태연) 요르단/이슬람 난민 (YWAM/설00) 인도/스리랑카 (JDM/서관옥)
동북아 (이안드레) 터키 (GMF/박00) 파푸아뉴기니 (NTM/문성) 파키스탄 (GMF/김인영)
MK (MKC/허지연) MK장학사역 (M&SC) 캄보디아 (하베스트/차세대교육/김해준)
온두라스 현지인교회 (모델로/과나까스데/실리시오/김인배) 온두라스 차세대교육/청소년교육 (김병수/니디아/로베르토) 온두라스 현지신학교 사역 신장, 위그르 (MKC/김00)
레바논/이슬람난민 (YWAM/박00)

1200 SW 185th Ave. Beaverton, OR 97006 <http://www.oregoneden.com>
사무실 503-848-8168

모임 및 행사 (Events)

4월 29일 (주)	제직회(1/3분기)
5월 6일 (주)	어린이주일
5월 6일 (주)	성찬식/정기당회
5월 6일 (주)	가족운동회
5월 11일 (금)	금요기도회
5월 13일 (주)	어버이주일
5월 13일 (주)	성도회월례회(1,2,3남녀/4,5여)
5월 13일 (주)	구역장/교사모임
5월 18일 (금)	All Generations Worship
5월 20일 (주)	창립기념주일 및 성령강림절(연합예배)
5월 20일 (주)	성도회월례회(4,5남)

예 배 순 서

9:30/11:30 예배인도 원정훈 목사

* 예배의 부름 <small>Call to worship</small>	인도자	원정훈 목사
* 참회 기도 <small>Prayer of confession</small>	다함께	
* 신앙고백 <small>The apostles' creed</small>	다함께	사도신경
성서교독 <small>Responsive Reading</small>	다함께	교독문12번
찬송 <small>Hymn</small>	다함께	32/270장
기도 <small>Prayer</small>	1부:이효성 장로 2부:강지호 집사	
헌금 <small>Offering</small>	다함께	
* 봉헌 기도 <small>Offertory Prayer</small>	인도자	
요리문답 <small>Catechism</small>	다함께	
환영광고 <small>Welcome</small>	인도자	
성경봉독 <small>Scripture Reading</small>	인도자	미 6:6-18(구1295p)
찬양 <small>Choir</small>	성가대	
설교 <small>Sermon</small>	원정훈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 찬송 <small>Hymn</small>	다함께	265장 주기도문(Lord's Prayer)
* 축도 <small>Benediction</small>	1부:원정훈 목사 2부:이경천 목사	

표는 다 같이 일어서서 (Indicates please stand)

기도/안내/봉사

	이 번 주 (4/29)	다 음 주 (5/6)
기도	1부:이효성/2부:강지호	1부:Ken.P/2부:정석재
안내	1부:김범수 2부:김병택/임향숙	1부:김범수 2부:김병택/김현정/임향숙
헌금	1부:김주찬/조정희 2부:김태민/원영주/이영미	1부:김동식/김선영 2부:이중화/황지현/정혜영
친교봉사	김영배/김현자	이효성/유영숙
배식/정리	파키스탄	베트남
주차안내	3남성교회	4남성교회
주일청소	김제구/오재영/이승철	홍동호/Sarah J.
타운봉사	강지영/성승훈	김태민/류정훈
주간관리	이동렬/김범수	일대일제자양육반(5/5) 이동렬/김범수

예 배 시 간

수요예배 (7:30pm)	이번 주 : 파키스탄 다음 주 : 베트남	원정훈 목사 기도: 유영숙 권사 기도: 김경이 집사
새벽예배	화수, 금 목 6 : 00 AM 본 당	고현준 전도사 원정훈 목사 곽성한 목사
금요찬양 기도회	매 월 첫 째 (한 어) 둘째 (All generation) 8 : 00 PM 본 당	원정훈 목사
영어예배 교회학교	E M 주 일 9 : 30AM 예배실 2 유 아 부 주 일 11 : 30AM 영아부실 유 치 부 주 일 11 : 30AM 유치부실 유 초 등 부 주 일 11 : 30AM 본 당 2 층 청 소 년 부 주 일 11 : 30AM 예배실 2 청 소 년 부 금 요 일 7 : 30PM 예배실 2 AWANA 수 요 일 7 : 30PM 친 교 실 2 한 글 학 교 주 일 1 : 30PM 각 교 실	다니엘 리 목사 Robin Williams 고현준 전도사 Nicholas Yi So 고현준 전도사 김동숙 집사

성경/기도모임/에덴 성경공부(EBS)

모임	요일	시간	장소	개강	대상	담당자
중보기도	금	10:00	본 당	진행중	누구나	곽성한 목사
핵심교리	주	13:30	사무동 2층	진행중	새가족/ 기존신자	원정훈 목사
	목	10:00		진행중		
실버성경공부	셋째 화 월1회	10:30	본 당	진행중	70세이상	원정훈 목사
신약(딤편)	목	10:00	본관 2층	진행중	누구나	김용규 목사
		10:00	사무동 1층	진행중		
신약(살전/후)	주	09:30	본관 2층	진행중	누구나	김용규 목사
		13:30	사무동 1층	진행중		
구약(스가라) 신약(마가복음) 마더와이즈	주 월	13:30	소예배실	진행중	누구나	곽성한 목사 원정훈 목사외 진행 팀
		10:00	본관 2층	진행중		
세상 속 제자도	매 월 3,4주 금	19:00	본당 2층	진행중	등록성도	류정훈 집사 오규창 집사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삶이 되며, 삶은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Heidelberg Catechism)

79문 :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그 잔을 자신의 피, 또는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왜 사도바울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답 :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써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Question 79. Why then doth Christ call the bread "his body", and the cup "his blood", or "the new covenant in his blood"; and Paul the "communion of body and blood of Christ"?

Answer: Christ speaks thus, not without great reason, namely, not only thereby to teach us, that as bread and wine support this temporal life, so his crucified body and shed blood are the true meat and drink, whereby our souls are fed to eternal life; (a) but more especially by these visible signs and pledges to assure us, that we are as really partakers of his true body and blood by the operation of the Holy Ghost as we receive by the mouths of our bodies these holy signs in remembrance of him; (b) and that all his sufferings and obedience are as certainly ours, as if we had in our own persons suffered and made satisfaction for our sins to God.

십 일 조	소계:\$	4,844.00
주일 헌금	소계:\$	2,052.00
감사 헌금	소계:\$	332.00
교역 헌금	소계:\$	215.00
주교역 헌금	소계:\$	95.25
구친교역 헌금	소계:\$	487.00
친교역 헌금	소계:\$	200.00
기타 수입금	소계:\$	
건축 헌금	소계:\$	150.00
주 계		\$8,475.25

하나님께 예배 세상에서 정직 열방을 향한 선교